

보 도 해 명 자 료

(19. 2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 해체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(조선일보 2.1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- ◇ 2월 12일 조선일보, < 2,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·울산 접경에
짓는다 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함
 -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
설립 예정
 - 부산·울산은 연구소 정문 출입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
 - 현재 한수원, 산자부, 지자체, 민자 등 참여 기관 지분 비율 조정중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입지, 규모, 방식 등 다양하게
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윤요한 과 장(044-203-5340)
임승윤 사무관(044-203-5232)